

대학 학제의 개편에 대한 소고

유 희 경 경원대 경상대학 교수

1. 들어가는 말

대학들마다 학부제, 학과군 등 모집단위의 개편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학부제가 왜 좋은가 또는 학부제는 왜 시행해서는 안 되는가 등을 놓고 학교당국과 교수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학부제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제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기회를 입학 후로 미루어 더욱 신중하게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하나의 학부 안에 2, 3개 정도의 학과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게다가 이 학과들의 전공 또한 유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자유를 전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 각 조직의 구조조정 바람에 따라 대학도 다양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조조정 내용들은 대부분 경비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약간의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대학의 학부제 및 구조조정의 시행 이전에 우

리 대학의 교육여건에서 4년이라는 학부 수학연한이 바람직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동안에도 조기졸업제도를 도입하여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조기졸업 제도는 학부 수학연한을 4년으로 설정하고 극소수 학생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실행의 효과는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학제는 일제하에서 일본의 것을 기초로 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6, 6, 4, 2의 학제를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없이 또한 인습적인 타성에 젖어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호주 및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초·중·고등 교육의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학부의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여 3년으로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학부의 최저 졸업학점을 현행 130 내지 140학점에서 110학점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즉, 교양과목의 최저 취득학점을 10 내지 15학점, 전공 및 일반선택의 취득학점도 10 내지 15학점 정도 축소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 교육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고찰

하여 그 당위성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효익(benefit)을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학부 수업연한의 단축은 교육제도의 큰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나 제도의 정착에 따른 다소의 혼란은 그 실행에 따른 효익과 비교할 때 아주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제 개편의 이유

1) 학부 교육의 대중화

이제는 경제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학부 교육을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린교육체제의 제도화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에는 대학 진학률이 단지 9.7%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5년의 경우 37.2%, 1996년 61.8%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8년에는 93.5%에 달한 것으로 보아, 2002년에는 100%를 상회하여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가 아니라, 대학을 골라서 진학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¹⁾. 즉, 대학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진

학하는 상아탑이 아니라, 모든 원하는 이들이 진학하는 배움의 터전이 되었다. 1996년의 대학진학률 61.8%는 1975년의 고등학교 진학률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여건이며, 이는 대학재정의 확충방안 및 정부에 의한 장기적 대여금의 지급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원 교육의 일반화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더불어 대학원 교육도 이제는 일반화된 현상 중의 하나이다. IMF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워지다보니 과거보다 더 많은 이들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 학문을 필생의 업으로 하고자 하는 몇몇 선택받은 이들만이 진학하는 곳이 대학원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경제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손쉽게 입학할 수 있는 곳이 대학원이다. 현제도 많은 대학교의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들은 법정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원 교육의 일반화는 자동적으로 교육연한을 2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아마 10년 이내에 경제적 문제를 예외로 한다면 진학을 원하는 이들이 모두 입학할 수 있어 대학원 진학률도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3) 교양교육의 부실

대부분의 대학은 교양학점을 30 내지 45학점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문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의 많은 교수들은 교양학점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다른 단과대학의 교수들은 교양학점의 축소를 원하고 있다. 대학 교육과정의 교양과 전공의 구성비는 계속해서 선택적 갈등의 문제로 남아 있다. 이는 대학의 본질에 대한 시각차이에 기인하는 면도 있지만, 개설되는 강의과목의 축소와 확대라는 상호배타적인 이기심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균

(표) 연도별 진학률 (단위:%)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기관
1970	54.1	29.3	9.0
1975	72.6	41.8	9.7
1980	96.0	66.2	17.0
1990	98.4	87.2	37.4
1995	102.8	91.0	57.9
1996	102.9	89.8	61.8

※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 교육대, 대학이 포함됨.

※ 자료 : 천세영(1997), 『지표로 본 한국교육의 구조』, 교육진흥, 제9권 제4호, 통권36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35쪽.

1) 교육부, 대학정원 자율조정 안내자료집, 1998. 7. 15, 93쪽과 97쪽 참조.

형있는 교양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많은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교육은 고등학교때 배운 내용의 반복, 100여 명 이상되는 대형강의, 시간강사에의 높은 의존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마저도 교양교육에 대하여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경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이 높다. 그리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한 평생을 사는 데 교양으로 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습내용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여겨진다. 또한 교양은 대학시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비용 면에서 훨씬 저렴하기도 하다. 현재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의 초·중등교육의 기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4) 전공 교육과정의 문제

많은 대학교의 전공 교과목이 특강, 원강, 연습, 세미나, 실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과목이 I, II, III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D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보면, 4개의 실습과목과 1개의 특강과목이 전공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B대학교 무역학과에의 경우에는 2개의 연습과목, 1개의 특강과목이 있고, K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의 경우에는 4개의 연습과목이 있다. 많은 자연계열 학과들은 과목이 실습과 I, II, III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많은 전공과목을 개설하려 하다 보니 대학원에서 개설하여야 하는 과목들이 학부에서 개설되고 있으며, 이는 학부생들에게 너무 높은 전공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제 등의 시행으로 많은 대학들은 전공과목을 35학점 내지 60학점 정도만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선택을 대개 55학점에서 70학점까지 허용(예를 들어, 공주대학교의 조경학과는 교양 36학점, 전공필

수 18학점, 전공선택 18학점, 일반선택 68학점으로 하여 140학점을 요구하고 있음.)하고 있다. 많은 전공과목의 개설도 문제지만, 겨우 36학점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도 조경학사 등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대학 교육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 기회를 갖는 아주 일반화된 교육이라면 그 전공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과목만을 내실있게 교육하여, 사회에서 기본적 전공만큼은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전공학점을 36학점 정도(필자의 재직 대학도 학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과는 전공의 최소학점을 35학점으로 하고 있음)만 이수하도록 한다면 구태여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학제 개편에 따른 효익

현행의 4+2 구조를 3+2, 3+3 등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학제 개편에 따른 효익을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제적 효익

수업연한의 단축은 엄청난 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대학교의 신입생 정원을 40만 명으로 잡고 일인당 연간교육비를 약 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2조 원의 직접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기회원가는 약 4조 원 정도이다. 그러므로 직접교육비의 절감과 기회원가를 합한 금액은 약 6조 원에 달한다. 대학입학생의 규모가 계속 증가한다면 수업연한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또한 간접적인 경제적 효익으로는 대학교육의 일반화

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생산성이 증가하나, 대학졸업자수의 증가는 대졸자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995년 고졸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100으로 한 경우 중졸자는 91, 대졸자는 147이었다. 만일 대학교육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는 중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 정도로 좁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연도별 고졸자와 대졸자의 학력간 임금격차 비교에서 대학진학률이 비교적 낮았던 1980년의 217이 대학진학률이 높아질수록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대학진학률이 더 높아진다면 임금격차는 더욱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대학 진학 문제의 해결

21세기의 대학환경 변화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인 대학이 아니라 소비자인 학생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된다면 대학교육도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처럼 원하는 모든 이에게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도 몇몇 지방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대학 수업연한의 단축은 현재의 시설과 교수진으로 30% 이상 더 많은 신입생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원하는 학생들을 대학이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적인 팽창은 대학 교육을 일부의 엘리트교육에서(현재도 대학교육을 엘리트교육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대중을 위한 보편교육으로 전환시킨다.

양적인 팽창이 질적 수준을 낮출 가능성도 있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가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가에 달려있다. 더불어 대학 진학기회의 확대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중한 입시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현재의 중등교육은 대학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간 경쟁의 확대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생보다 대학의 수용능력이 더 크다면 대학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약 200여 개의 대학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만이 살아남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특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학과를 통폐합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대학간 경쟁력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빅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대학이 모든 학과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대학들을 아직도 개혁에 소극적이라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전문대학의 존재이다. 학생들의 선택 성향이 다소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전문대학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추후 언급하겠지만 전문대학 제도에 변화를 부여한다면, 대학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이는 시장원리에 의하여 대학 개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학부는 대체로 교육을 위한 과정이며, 대학원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정이다. 다만 교육과 연구는 불가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나 추구하는 근본적 목표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학부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의 역할 분담이 더욱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4)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서울대학교의 대학편제에 대한 애초의 계획은 대학원 중심대학을 전제로 한 2+4라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안은 많은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못하였다. 만일 이 편제가 3+3 또는 3+2의 구조라면 어떠하겠는가? 3+3의 경우 2+4와 동일한 수업연한이라 하여도 더욱 알차게 대학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의 전문대학원은 3+2의 구조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란이 많은 법학

대학원(law school)이나 의학대학원의 설치도 3+3의 구조를 채택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공에 따라 대학원과정을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탄력성 있게 유지한다면 2+4 구조하에서 학부 2년 과정이 다시 입시장화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의 내실화는 석사와 박사과정을 더욱 밀접하게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학문의 질적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부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경제적 여건만 해결된다면 누구나 다 진학하는 대학원이 아니라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서 평생을 보내고자 하는 학생들만을 선발하여 엘리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학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대학원 교육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한 전공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환경이 열악하다. 심지어 대학 재정을 위하여 백화점식의 학과 및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있다. 학부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대학원과정을 학문적 특성에 따라 2년, 3년, 4년 등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연구수준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1998. 10. 8., 동아일보, 조선일보)은 바람직하며, 그 계획은 학부와는 차별화된 교육여건의 마련과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학원 교육의 강화와 차별화는 학부 교육의 보편화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전공교육의 심화

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줄이는 것은 오히려 학부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전공교육의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 졸업학점을 110학점 정도로 유지하면서 학부제가 아닌 부전공제를 유지한다면 전공교육은 더욱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교양과목을 30학점 이하로 축소한다면 현행의 학부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수업연한의 단축은 연습, 세미나, 특강, 실습, 원강 등의 과목을 축소하게 되어 동일한 과목을 두 번 강

의하거나 수강하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된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다. 전공교육의 수준은 많은 과목을 주입식으로 교육하기보다, 대학원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전문대학의 개편

대학 수업연한의 단축은 전문대학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대학교로의 승격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공에 따라 1년 또는 1년 반의 기간 동안 전문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능대학으로의 전환이다. 이 때 많은 전문대학은 대학교로의 승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능대학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문기능대학은 국·공립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학교법인 산하에 있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을 통하여 상당수의 전문대학을 대학에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7) 고교교육 정상화

고등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대를 위시한 세칭 일류대에 보다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하여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3+2, 3+3 또는 3+4 등의 구조는 특히 서울대학교가 모든 학과를 학부에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성적우수 학생을 싹쓸이해가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학, 의학, 경영학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는 졸업자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목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서울대가 전문대학원에서 수용한다면, 서울대학교를 향한 줄서기 현상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칭 일류 대학들과 규모가 큰 국립대학들이 연구중심,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고 학부에서는 특성화된 학과들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고등학교 교육

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여건에 따라 학부중심대학과 대학원중심대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서울대 및 일류대 선호 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도 대학마다 특성화 분야를 보다 확대하여 학부에서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 말

교육제도도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교육구조에 대한 물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전시적(展示的)이고 비능률적인 교육구조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부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3+3 또는 3+2의 구조는 학부 교육의 일반화와 더불어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중심대학의 경우에는 더욱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계와 연계된 연구개발의 협동체제를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직업구조가 너무 하향 이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이면 가능한 직업이 대학졸업생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직업을 얻지 못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면 가능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력 인플레이션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지운다.

그러므로 학부 교육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대중화하고, 대학원 교육은 차별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부 수업연한의 단축은 정부가 교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늘이지 않는다 해도 재정지원의 효과를 한결 크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4+2 구조는 학부와 대학원 교육 모두에게 문

제를 안겨주고 있다. 3+3 또는 3+2 구조는 학부 교육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극할 것이며, 연구를 중심으로 한 대학원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부 교육이 엘리트 지위로 이동하는 신분상승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 신분하강 효과를 부여한다면 이는 대학교육이 역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제 학부 교육은 신분하강 효과를 방지하는 역할로 인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부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그 효익이 아주 클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학부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학원 교육의 경쟁력 있는, 질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3+2, 3+3 등으로의 학제 개편을 제시하였다. 다만 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부 구성원들에게 혼란과 고통의 수용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많은 저항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대학조직은 보수적이며 시대에 앞서가기보다 안정 지향성이 강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 학제 개편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과감한 통솔력하에서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 대학 학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

유회경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조지아 주립대와 호주 퀸스랜드대에서 연구하였다. 현재 경원대 경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 대학 기획부처장과 총무처장을 역임하였다. 관리회계 및 환경회계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현대관리회계』, 『현대원가회계』, 『호텔회계원리』, 『회계학연습』 등의 공저서가 있다.